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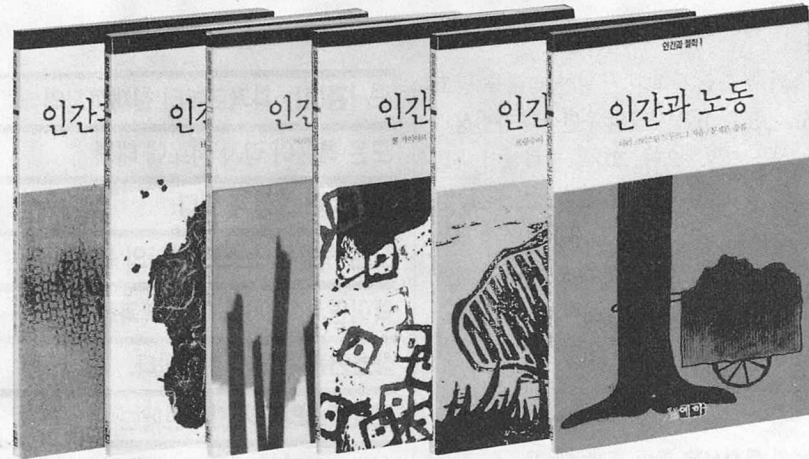
# 프랑스 고교생의 철학교육 텍스트

## 「인간과 철학」시리즈 1차분 6권 선보여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건강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획의도를 내건 의미있는 '철학문고'시리즈가 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도서출판 예하(대표 박길부)에서 프랑스 고교생들의 대학입학자격 시험준비용 텍스트인 '바칼로레아'시리즈를 譯刊해 선보인 「인간과 철학」이 그것으로, 이 시리즈는 에피쿠로스, 플라톤,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마르크스, 니체, 푸코 등 대철학자들의 사상을 풍부한 예문을 들어가며 체계적으로 서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되는 권력이나 지식, 노동, 욕망 등의 문제를 그 범주적 분류에 따라 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제1권 「인간과 노동」(마리 크리스틴 드무로그 지음, 문재은 옮김)은 인간과 노동의 문제를 매우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노동은 사람들이 상호만족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실천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노동의 진정한 의미가 정치적, 경제적 제도 속에 어떻게 상실되고 왜곡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는 전제 아래, 고대사회의 주인과 노예문제를 비롯하여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노동문제를 폭넓게 고찰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폭력과 권력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제2권 「인간과 권력」(프랑수와 스티론 지음, 이화숙 옮김)은 폭력이란 무엇이며, 권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한마디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 폭력과 권력의 본질 및 그 필연성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제3권 「인간과 자유」(뿔 가이아 지음, 이상해 외 옮김)에서는 '절대적 자유'를 외친 루소로부터 인간존재를 비본질적이고도 우연적 존재로 파악한 사르트르의 '실존적 자유'에 이르기까지 자유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흥미롭다.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사회,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데까지 그 의문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이같은 물음들 속에 자유와 의무, 종교적 가치와 지상의 가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철학은 욕망 그 자체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바라는 대상, 특히 욕망이 향해야 하는 대상들을 사고한다고 주장하는 제4권 「인간과 욕망」(마르틴 콜랭 지음, 박윤영 옮김)도 눈길을 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좋은 욕망과 나쁜 욕망의 대조를 통하여 나쁜 욕망의 자체를 말하면서, 그것이 사회생활에 훌륭히 적용해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제5권 「인간과 논리」(H. 발랑 지음, 강주현

옮김)는 논리학과 수학의 원리를 빌어 우리 인간들의 사고의 법칙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그 특징. '논리적 사고' 및 '수학적 사고'의 두 부분으로 나눈 가운데 논리학과 철학의 관계를 독특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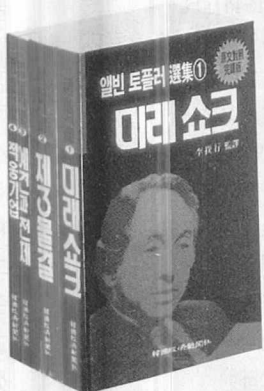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6권 「인간과 언어·예술」(에릭 루이 지음, 이한헌 옮김)은 인간이 사고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언어활동이 수반된다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작용을 규명하고 있다. 현대언어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페르디낭 소쉬로의 기호학과 롤랑 바르트의 언어학을 통해, 예술활동 또한 언어활동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

이 「인간과 철학」시리즈는 본격적인 연구서라기보다는 철학입문서의 성격이 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나는 독일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철학계에 프랑스철학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한다는 점이며, 그들은 이 자그마한 문고판이 대학입시를 위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번에 나온 1차분 6권에 이어 출판사측에서는 ⑦ 「철학의 역사」 ⑧ 「지식과 권력1」 ⑨ 「지식과 권력2」 ⑩ 「철학용어사전」 등을 곧 펴낼 예정이다. — 반경환 기자

# 새롭게 편집된 '미래학의 古典'

## 한국경제신문사 펴냄 「엘빈 토플러 選集」



「미래쇼크」(Future shock)라는 新造語를 탄생시켜 세계적인 화제와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는 엘빈 토플러의 저작選集이 韓國經濟新聞社에서 번역·출간됐다. 제1권 「미래쇼크」, 제2권 「제3물결」, 제3권 「예견과 전제」, 제4권 「적응기업」 등이 그것인데, 監譯을 맡은 한국경제 李揆行사장의 말에 따르면 "그의 대표저작을 일일이 원문과 대조해가면서 완역하는 한편 새로운 편집체제로 다듬어 '엘빈 토플러選집'으로 내놓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쇼크」에서 미래쇼크란 머나먼 잠재적 위험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실재의 질병이라고 진단하

고 있어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오늘날 진지한 지식인들조차도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미래를 위한 인간대비' 등 그 어떠한 '적응이론'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책에서는 그 목적을 위해 새로운 적응이론을 폭넓게 제시한다.

「제3물결」은 이미 우리시대의 고전이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손꼽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과 유럽을 휩쓴 정신문화적 방향 속에서 서방사회는 미증유의 패배주의와 비판론이 팽배하게 되고 과연 서방문명, 나아가 인류사회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는가 하는 강한 의혹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엘빈 토플러는 현 인류사회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산업혁명'이 이끄는 새로운 '제3물결' 문명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혼란과 위기는 새로운 문명을 맞기 위한 진통에 불과하다고 예견했다.

오늘날의 경제적 위기, 미래의 노동과 실업, 일본에 관한 신화 등을 분석하고 있는 「예견과 전제」는 산업사회의 붕괴에 직면한 다른 여러 나라들의 발전의 전략문제에 대한 토플러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는 내일의 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여성과 소수민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제4권 「적응기업」은 엘빈 토플러가 1972년 미국 전신전화사에 제출한 비밀보고서로, 미래기업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새로운 고도산업사회의 모델과 그 조직구조를 제시해놓고 있다.

엘빈 토플러는 사학자도 과학자도 아니면서 인류의 과거를 정리하여 현재를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 「제1물결」(농경문명)과 「제2물결」(산업문명)의 과거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해설해주고 있으며 「제3의 물결」(超산업사회문명)의 미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도 있다.